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5월 발행 (제 61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예레미야
- ◎간증 '성령의 열매'를 잇다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예레미야

이번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4: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 부분을 따라 생각해봅시다.

<심판이란?>

텍스트 부분에서는 "심판"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원래 어떤 의미의 말씀 인 것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어로 "krima"라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어는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14 위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재앙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쳐부수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그래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에 틀림 없다

여기에서 "처벌"로 번역 된 단어가 동일한 원어입니다.

누가복음 23: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형벌"로 번역 된 단어가 동일한 원어입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의 취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처벌이나 형벌의 날이 올거야"라고 경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사는 장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말의 날에 반드시 교회에 심판과 형벌의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행히도 지금의 교사들은 장님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경질 좋은 것 밖에 메시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의 날에는 영광 중에 하늘로 거론 환난도 심판도 만나지 않는다고 말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실수 것이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착각을 하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11: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신들은 의인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의로 가득 차있어 하늘로 꼽힌다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를 넘는 것이며, 하늘로 꼽힌다 커녕 음부에 떨어질만한 것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현재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늘로 꼽힌다기보다는 음부에 떨어질만한 것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에 종말의 날에 교회에 심판이 내려진 형벌이 내려 질 날이 올 것입니다. 형벌은 의미 없고 내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은 모두 이유가 있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어쨌든 나쁜 일을 하여 각각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고, 종말의 날에 교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경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된다>

또, 텍스트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처벌을 내리게 될 날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의 배교 때문에입니다. 종말의 날에 교회가 배도하는 것은 다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곳에서는 교회 배교가 일어나고 그 결과, 멸망의 자식, 즉 적 그리스도도 교회가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날에 교회는 배교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종말의 날 하나님의 집, 교회의 심판 형벌의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판의 때에 하는 특별한 시간>

위 텍스트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the time is com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심판의 때와 관련하여 성경은 "the time"으로 특정 한 순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끝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가 극에 달한 특정 시대에 대해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주님의 첫 강림 때도 특별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다윗과 계속되어 온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절정, 혹은 배교의 극치라고도 말할 때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그들은 과거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큰 죄, 즉 메시아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다윗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큰 죄이며, 말하자면 배교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죄로 인하여 주 예수의 첫 강림의 시대의 사람들은 엄격한 심판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예루살렘 도시는 로마에 의해 포위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살해했습니다. 큰 심판, 형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 주 예수의 첫 강림 때의 심판과 같은 엄격한 심판이 앞으로 교회에 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하였다>

4:18 ○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런데, 그 앞으로 교회에 심판의 때와 관련하여 그 날에 의인이 겨우 구원, 수 말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날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 날 관해서는 다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2:7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2: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에는 홍수 피해를 전파하는 노아에게 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의인 롯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 이야말로 이러한 심판을 간신히 피한 의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텍스트의 "의인이 겨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심판의 날"에 대해 조금 이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그 심판 날에 배교의 교회에 내리는 심판은 어려운 것이된다. 그것은 노아 때의 홍수처럼 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 심판처럼 어려운 것이된다. 그날 심판에서 멸망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다.

② 그 날, 노아와 롯과 같이 소수의 의인이 그 교회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생명을 永らえる.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교회의 심판과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일을 성경은 암시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다>

우리가 앞으로 오는 교회의 심판의 시간을 거쳐,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위 노아에 관한 말씀이 힌트가되는 것 같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우리 여덟 사람을 보호하고"

여기에 홍수의 심판의 때를 거쳐 게다가 목숨을 건져 노아에게 관련하여 그들이 **"의를 전파했다"** 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앞으로 오는 교회의 심판의 시간을 거쳐,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거라면, **"의를 전파하는"** 점에 눈을 고정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전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 시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6: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9 ○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10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6:11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6: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노아의 시대는 이렇게 타락하고 길을 어지럽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들은 그 시대에 있어도 제대로 그쳐 또한 의를 전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홍수에 의해 멸망 될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들이 의를 전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도의를 전파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있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주님은 위선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 즉 하나님의의의를 전파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3: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23: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23: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처럼 주님은 위선적 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의의를 강조했다. 그들에게 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와서 심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훗날 재앙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실이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행 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날에 도의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의를 전파한 사람들의 수는 종말의 날에 관한 형태와 같다. 종말의 날에서도 의의를 전파하고 온 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신경질 좋은 종말의 멋진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전에 끝한다거나, 교회에 심판은 오지 않는 등의 공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 다가올 교회의 배교에 대해 경고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집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어려움을 당하다>

그런데 소돔에 살면서 목숨을 건져 의인이 된 롯, 즉 "간신히 구원받은 의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이 의인이 그들 사이에 살고 있었지만 불법 행위를 보고 듣고 날마다 그 올바른 마음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인 롯은 동성애 마을 소돔에 살면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죄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날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날에 타락한 교회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교회는 그날 동성애를 수용 하나님의 전에 소돔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넣고 그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타락한 교회에 타협하지 않고, 어디 까지나 로또처럼 의인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제대로 무마하려는 쿠리찬에 대해 어려움이 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텍스트 부분의 전후에는 다음과 같이 고난을 암시하는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받는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은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고통을 만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그 배교의 교회, 기독교에서 올 수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종말의 날, 하나님의 집 형제 사이, 부모와 자식간에 고소 죽음 전달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0:2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배교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사기꾼, 거짓말쟁이임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어디 까지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고소 죽음 전달됩니다. 그리스도는 거절되고 대신에 적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의 날 재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사기꾼 취급을 하고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받아 들인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를 재현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7:21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27: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음에 건네 준 예루살렘 사람들은 훗날 심판에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종말의 배도 교회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기꾼 취급을 고 어디까지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온다"고 텍스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필요한 종말의 준비를 합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성령의 열매'를 잇다

매주 예배 메시지에서 여러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 소중함을 벨전 편지 3 장에서 습득 해, 그것도 내 우리가 사후에 받을 심판의 기준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음성 메시지로 아시는 분도 계시 리라 생각 합니다만, 그러나 첫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3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3: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외적인 것만으로 힘을 놓지 않고 내면적 인 것에 주력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차적 인 의미로서 외관 만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비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외면'과 '내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장식"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은 '믿음'의 비유이므로 "금장식"는 "대단한 믿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뜨개질"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렸을 때의 "가시 면류관"의 말에 통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다던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외면'입니다. 그리고 "금장식 '도'머리를

뜨개질"라는 말도 모두 '외부 적'인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훌륭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4 절에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대해 하나는 "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거나 온화한 영으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얻어 갈 때 썩을 수 없습니다. 모처럼이므로 "썩을 수 없다"라는 말을 살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함 '은'부활 '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 한 벤전 편지 "썩을 수 없다"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은 "영생"에 통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영생을 얻는 지? 이 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요점을 설명합니다.

- ① 하나님이 소중히 하고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다.
- ② 어떤 영으로 인도되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 ③ 하나님께서 심판 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소중히 하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때 "온유 한 영"=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이라는 결론이 되고, 그것은 "부활의 생명"(영생)에 통해가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에 힘을 쏟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만, "응응, 분명히 일지도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않는 패턴의 결말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26 ○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4: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4: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4: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물린'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거'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모종'나 '이삭'은 거두 않고 '열매'(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만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어디에 포인터를 놓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만을 보지 않고, "성령"에 의해 견게 마음을 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거두되지 않으므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으로 걸어가 계신 여부는 차치하고, 개인적으로는 「응? 이건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매주 예배에 가고 있으면, 그리고 봉사를 하고 있으면 훈련을 하고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뭐라고 생각이 다소 있었습디만, 그래도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믿음도 은사도 봉사도 훈련도 아무도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하나는 있는 편이 좋으며, 또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도 일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나가기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메시지에서 말씀했습니다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동 해 나가지 않으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했습니다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때 배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금기 (하데스라든지 불구덩이라든지 지옥이란 곳)에 사후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라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도, 괜찮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씨 뿌리는 사람